

## 1960-70년대 누정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문화정치적 함의

- 파주 화석정(花石亭)을 중심으로 -

##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Space in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

전 국 조\*

Jeon, Guk-Jo

((사) 장경도량 고려대장경연구소)

## Abstract

Focusing on Hwaseokjeong in Paju, the work seeks to clarify the social production of *Nujeong* (樓亭: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space, which took place over the 1960s and 70s, and its cultural-political implications. To make the effort as such meaningful, a theoretical framework based not merely on the thesis of 'social production of space' advocated by Henri Lefebvre but especially on some discussions related to 'state production of space' is prepared, according to which Hwaseokjeong is analyzed and explained. As a consequence, two principal arguments are put forward: one is that Hwaseokjeong was a social space which had been built and constructed in accordance with the unique mode of production dominating Korean society at that time called 'the state mode of production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the other is that what lies beneath the denotation of a 'social space of tradition restoration' that Hwaseokjeong appears to carry is in fact the connotation of 'infiltration of anti-communist ideology'. All of these claims are once again supported both by examining Roland Barthes's semiology and mythologies and by considering Hwaseokjeong's *Pyeonaek* (扁額: a plaque or framed text) as 'the practice of naming power through *Jesa* (題詞: inscribing dedications)'. While providing a succinct summary, the paper finally evaluates what 'social production of space' implies to social practices of architecture and related criticisms by taking into account the relationship between visibility and readability of space including buildings.

주제어 : 누정(樓亭), 화석정(花石亭), 공간의 사회적 생산, 국가적 생산 양식, 편액(扁額), 문화정치

Keywords : *Nujeong*, Hwaseokjeong, Social Production of Space, State Mode of Production, *Pyeonaek*, Cultural Politics

\* Corresponding Author : gukjojeon@daum.net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과제번호: NRF-2022S1A5A2A03050619. 아울러 이 작업은 <2023 고려대장경연구소 춘계 세미나 '조선의 누정과 편액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가능성'>(2023년 4월 21일, 한양대학교)에서 한 차례 사전 발표 및 토론을 거친 후 수정·보완한 것을 <(사) 한국건축역사학회 2023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활용>에서 발표한 이후 재차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자리를 빌려 당시 세미나 및 학회에 참석해 주신 모든 선생님, 특별히 논지 전개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많이 해 주신 한동수, 김학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린다. 끝으로 이 작업을 심사해 주신 익명의 선생님 세 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제시해 주신 비판적 의견은 말할 것도 없고, 무엇보다도 그 의견의 다채로움으로 말미암아 이 작업의 문제점과 한계가 한층 더 명확해졌으며 귀중한 의견 한 마디 한 마디가 향후 작업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 1. 서론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그것이 모여 이루는 역사, 또는 그 모두가 자리 잡고 있는 정황이나 맥락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입장을 통틀어 사관(史觀)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기 나름의 그것을 갖고 있다고 여기고 있는 사람의 수만큼이나 많고 다양할 것이다. 이는 특정 공간의 생산을 위한 인간의 사회적 실천으로서 건축<sup>1)</sup>,

1) 이와 관련해서 르페브르가 '건축'과 '건축가'를 두고 하는 얘기는 주목할 만하다. "나는 '건축(architecture)'을, 기념물을 세우는 권위 있는 예술로도, 단순히 건설(construction)이라는 필수 불가결한 활동에 대한 전문가의 기여로도 이해하지 않는다. 건축가는, 첫 번째 의미에선 자신을 테미우르고스의 지위로 격상하고, 두 번째 의미에선 외부

또 그것의 잠재태 또는 현실태로서 건축물을 아우르는, 이른바 건축관(建築觀)이라고 하는 것에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사관과 건축관, 이 둘을 한데 묶어 보면 상황은 한층 더 복잡해진다. 우선 건축사관(建築史觀)이 있을 테고, 역사건축관(歷史建築觀)도 있을 수 있다. 전자는 다시 둘로 나뉜다. 하나는 넓은 의미로서, ‘건축의 역사’ 전반에 대한 관점, 다른 하나는 좁은 의미로서, 건축학(architecture)의 한 분야인 건축사에 대한 관점이다. 둘로 나뉘는 것은 후자인 역사건축관도 마찬가지다. 첫째는 ‘역사의 건축’에 대한 관점,<sup>2)</sup> 둘째는 역사적, 그러니까 역사와 관련하여(historical) 역사적으로 중요한(historic) 건축 및 건축물에 대한 관점이다. 개인적으로 건축학 분야의 지배적인 역사건축관은 대개 후자, 그것도 역사적으로 의의가 있는 건축물에 대한 관점과 관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 자칫 빠지기 쉬운 함정이 하나 있다. 바로 ‘불변을 향한 집착’이다. ‘시간적으로는 오래된 것일수록 좋고, 공간적·형태적으로는 바뀌지 않은 것일수록 좋다’는 입장이 될 텐데, 이른바 ‘문화유산’이라는 것의 가치 기준이 대개는 이렇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같은 ‘불변을 향한 집착’ 또는 ‘모진 풍파를 견디고서도 눈앞에 우뚝 서 있는 구조물(structure)을 향한 경외심’이 아예 이해조차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sup>3)</sup> 그러나

적이면서도 더 높은 데서 내리는 명령에 응답하는데, 그 명령은 건축가한테 기술자나 기업가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건축’으로 내가 이해하려는 것은 특정 층위에서 이뤄지는 공간의 생산이며, 그 범위는 가구에서 정원과 공원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경관까지 확대된다. 단, 도시 계획과 대개 ‘토지 사용 계획’으로 알려진 것은 제외한다.” Lefebvre, Henri, *Toward an Architecture of Enjoyment*, Łukasz Stanek (ed.), Robert Bononno (tr.),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4, p. 3.

2) 마르크스·엥겔스가 토대와 상부구조라는 ‘건축술적 비유’를 통해 계급투쟁의 역사를 설명한 것이나 이를 사상사적으로 재전유한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의 『은유로서의 건축』(1998), 또는 그 둘의 『공산당 선언』에 등장하는 ‘유령(spectre)’을 재사유한 데리다(Jacques Derrida)의 ‘해체론(déconstructivisme)’ 및 ‘유령론(spectrologie)’ 같은 작업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고진의 경우 서구 사상의 특징을 ‘건축을 향한 의지’로 보고 플라톤과 니체를 비롯한 여러 철학자가 경합하는 장(場)을 상이한 철학-건축적 의지가 형성하는 사상사적 벡터 공간으로 펼쳐 보이고 있다. 데리다의 해체론은 “이론적 건축물의 자족적 내면성을 의심하고 그 내면적 공간의 일관성 결여를 들추어낸다의 점에서 탈이론화의 작업”으로 볼 수 있으며, 그 같은 ‘탈이론화의 작업’은 그 공간 안에서 이론화 불가능한 동시에 파괴 불가능한 요소를 발견하는 일’에 해당한다. 그리고 그 “불가능자는 이후 유령”으로 불리게 되는데, 이 ‘유령’의 관점에서 볼 때 사실 “해체론은 그 유령적 요소를 중심으로 이론적 건축물의 구조를 풀이”하는 것이다.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현대 프랑크철학의 쟁점』,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389쪽.

3) 여기서 ‘문화유산’은 일반 대중한테는 여전히 ‘문화재’로 불리고 있는 것을 가리킨다. 2022년 봄에 기존의 ‘문화재’를 대신하는 공식용어

이것이 의외로 아주 심각한 모순을 초래한다는 사실 또한 간과할 순 없다. 그 집착이나 경외심이 실은 불변의 것, 그렇기에 전혀 역사적이지 않은 것을 향할 수도 있으므로 역사건축관 자체를 일종의 ‘구조(structure)’인 것으로, 다시 말해 탈역사적(de-historical)이거나 초역사적인(transhistorical), 심지어는 몰역사적(ahistorical)인 것으로 변질시킬 ‘담론적 실천(discursive practice)’의 위험이 상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관점, 이를테면 ‘구조주의적 역사건축관’에 입각할 경우, 건축학 역시 동학(動學, dynamics)보다는 정학(靜學, statics)에 머무르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sup>4)</sup> 그 같은 관점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비판은 물론 그런 학적 동향에 대한 문제 제기도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sup>5)</sup>

상기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이 작업은 따라서 파주 화석정을 중심으로 1960-70년대에 걸쳐 이뤄진 누정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그것의 문화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데 주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먼저 르페브르가 주장한 ‘공간의 사회적 생산’ 테제,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공간의 국가적 생산’ 관련 논의에 토대를 둔 작업의 열개를 마련하고, 그에 따라 화석정을 분석·설명한다. 이를 통해 첫째, 화석정은 당시의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특이한 생산양식, 곧 국가적 생산양식에 따라 건축·조성된 공간이며, 둘째, 화석정이라고 하는, 이른바 ‘전통 복원의 사회적 공간’이라는 외연적 의미(dénotation)의 저변엔 ‘반공 이데올로기의 침투’라는 내포적 의미(connotation)가 깔려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다.<sup>6)</sup> 이 모든 주장은 바르트(Roland Barthes)의 기호

로 ‘문화유산’이 채택됐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볼 것. 노형석, 『‘문화재’ 공식명칭 안쓴다...‘유산’으로 대체』,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38372.html](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1038372.html) (등록일: 2022.04.11., 접속일: 2023.10.25.)

4) 이렇게 볼 때 정학(靜學)은 정체된 학문, 곧 정학(停學)이 된다.

5) 이는 구조주의에 대한 르페브르의 비판을 상기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조주의에선 형식·기능·구조 삼자 간의 상호관계모던 오직 하나 곧 구조만 강조되는데, 이것이 바로 구조적 또는 의미론적 환원이며 이로써 역사는 물론 프락시스(praxis, 실천), 변증법, 비극, 희극, 감정과 정열, 개인과 사회 대부분을 포함한, 구조 이외의 모든 것은 무시된다’. 엘든, 스텐어트, 『앙리 르페브르 이해하기: 이론과 가능한 것』, 전국조 옮김,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18, 52쪽.

6) 혹자는 ‘이와 관련한 직접적 ‘현황’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그 근거로 공간의 사회적 생산, 더 구체적으로 공간의 국가적 생산을 논의하고자 할 때 ‘현황’에 대한 작업자의 인식과 그것의 제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들 수도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주장과 근거는 ‘이 작업의 주목적이 1960-70년대 누정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문화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는 것이라고 할 때 그 목적 또는 그것을 표현하는 말 자체에서 자칫 화석정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누정의 유사 사례가 있다는 오해의 우려가 발생하고, 또 그렇기에 이 작업에선 국가적 생산 양식과 그에 따른 국가적 공간 생산을 화석정 하나로 국한해서 적

학(sémiologie) 및 신화론(mythologies)을 살펴보고, 화석정의 편역을 ‘제사(題詞)를 통한 이름 짓기(naming) 권력의 실천’으로 분석함으로써 한 번 더 뒷받침한다. 끝으로 간명한 요약의 우선 제공하고, 이어서는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의 ‘가시성-가독성 간 관계’를 숙고하면서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 건축 또는 관련 비평이라는 사회적 실천에 대해 함의하는 바를 검토해 본다.<sup>7)</sup>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비판적 견해와 맞물릴 경우 한층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 그 같은 ‘현황’을 포함하지 못한 것, 또는 현 시점에서 그 ‘현황’이란 것을 제시하기가 불가능하던 점은 분명히 이 작업의 한계다. 하지만 이 한계에 대한 변(辨)을 조금 늘어놓자면, 무엇보다도 ‘이른바 현황과 그것을 글로 옮기는 일을 과연 무엇으로 일컫는가?’하는 질문에 답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일반적으로는 ‘말’로 옮기는 일도 포함해야 마땅하지만 이 작업에 한정해서 얘기하면 ‘글’로 옮기는 일이 될 것이다. 먼저 ‘현황(現況)’은 글자 그대로 ‘현재(現在)의 상황(狀況) 또는 정황(情況)’을 뜻하며, 그것은 우선적으로는 ‘기술(記述: description)’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현황을 글로 옮기는 작업’은 ‘기술’이 되는 것이다. 아울러 기술은 주로 ‘분석·설명(analysis and explanation)’과 짝을 이루는데, 전자는 얘기하고자 하는 것의 ‘표층(surface)’을 살펴 관련 ‘정보(information)’를 있는 그대로 또는 사실대로 제시하는 것, 후자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theory)’이나 ‘지식(knowledge)’의 틀에서 그것의 ‘심층’을 파헤쳐 가급적 잘게 나누어 다각도로 고찰하고 해석한 뒤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한 ‘통찰(insight)’, 좀 더 거창하게 얘기하자면 ‘지혜의 입구(entrance of wisdom)’까지 마련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사실 이렇게 해서 마련되는 건 딱 입구까진데 그 까닭은 출구를 찾는 그 지난한 과정이야말로 각자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렇듯 두 작업은 사실상 상이한 층위에서 이뤄진다. 그 둘과 관련해서 또 하나 언급해 두면 좋을 얘기는 일의 순서와 관련된 것이다. 대개는 ‘현황 기술’이 먼저, ‘그 현황에 대한 분석과 설명’이 그 뒤를 잇는데, 이 작업의 경우 3장과 4장이 그렇다. 달리 말해서 3-1은 기술에, 그 뒤부터 즉, 그러니까 3-2부터 4장까지는 분석과 설명에 해당하며, 특별히 4장 결론에서 작업의 요약에 뒤이어 제시되는 ‘가시성-가독성’ 관련 논의, 보기에 따라선 ‘본문 분석과 무관해 보이는 탓에 오히려 결론을 더욱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으므로 아예 본문 분석의 내용으로 포함해야 한다.’거나, ‘그도 아니라면 차라리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는 비판적 견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는 그 대목은 사실 작업의 마지막에 ‘통찰’을 위한 장치로서 마련된 것이다. 끝으로 ‘현황의 제시불가능성’은 이 작업의 태생적 한계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해 두고 싶다. ‘현황 제시’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비판은 한 번 더 말하자면 이런 것이다. ‘1970년대 초반의 화석정 복원을 전통 복원의 사회적 공간과 반공 이데올로기의 침투로 보고자 할 때 이와 관련한 직접적 현상은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공간의 국가적 생산을 논의하는 측면에서 현황의 제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sup>8)</sup> 옳은 말이다. 이 작업의 맥락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봐도 중요한 논점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이 같은 비판의 가능성은 기술보다는 분석과 설명에 토대를 두고 있는 이 작업의 특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그러한 가능성의 제시 또한 조금은 선부른 것으로 비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지만 ‘현황 정리’가 중요치 않다고 하는 말은 결코 아니다. 다만 이 작업의 특성상 그것이 불가능하던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작업의 맥락에서 그 현황이란 걸 작성해서 제시하려면 1960-70년대에 복원된 누정 하나 하나를 살살이 파헤쳐야만 하며, 또 이를 수행하려면 각 누정에 대해 적합한 이론적 개념 및 분석틀, 이를테면 국가적 생산양식과 공간의 국가적 생산 같은 것을 적용하여 그 틀을 통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분석과 설명까지 도출해야만 한다. 그리고 이 같은 복잡다단한 작업의 결과물로 작성되는 어떤 표 같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엔 기왕의, ‘정보’ 중심의 현황이란 말보다는 다른 어떤 말, 그러니까 치밀한 분석과 명쾌한 설명에 이어 그것들을 새롭게 추상하고 개념화하고 범주화하고 목록화한 것임을 나타내는 어떤 새로운 말이 붙어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 그리고 그런 작업을 하려면 소논문 한 편으론 많이 모자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든다.

## 2. 공간의 사회적 생산

### 2-1. 구체적 추상

“(사회적) 공간은 (사회적) 생산물이다.”<sup>8)</sup> 이른바 ‘공간적 전회(spatial turn)’<sup>9)</sup>라는 것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둔 적이 있거나 지금도 여전히 그리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으레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 테제는 사실 보기보다 한층 더 복잡하다. 그 자체가 ‘구체적 추상(abstractation concreté)’이기 때문이다. 먼저 추상적 층위에서 검토해 볼 때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란 테제는 자칫 잘못하면 일종의 환원론이자 결정론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게다가 인간이 사회를 구성하고 살아가는, 이른바 사회적 동물이란 사실, ‘인간이 자기 특유의 동물성(animality)을 공유하고 있을 뿐더러 그 같은 동물성의 공유와 공유된 동물성이야말로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을 고유한 존재로 만든다’<sup>10)</sup>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기 힘든 이

7) 서울을 마무리하며 화석정 관련 선행연구를 잠깐 살펴보면 의외로 그 수가 적음에 적잖이 놀라게 된다. KCI에 국한해서 볼 때 직접적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단 1편에 불과하며, 이것이 “화석정의 시문과 사진을 분석해 단일 정자가 아닌 별서원림으로서의 역사·문화적 가치에 주목해 화석정의 원형재현과 주변 활용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과는 그 작업의 결이 상당히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차문성, 「화석정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역사적 고증과 복원문제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35, 2018, 271쪽.

8) 르페브르, 앙리,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서울, 에코리브르, 2011, 71쪽 — 강조 원저. 이와 관련해서, ‘서양보다는 한국 사회의 건축에 토대를 둔 담론 생산의 필요성과 한계를 절감하고, 또 그렇기에 건축보다는 건축 생산에, 아울러 건축의 역사보다는 건축 생산의 역사 주목하는, 한층 더 구체적인 시각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그러나 ‘역사적인’ 관점은 이러한 자못 구조주의적인 궁지를 극복하려는 각성과 실천(praxis)을 포함한다. 어떤 상황을 ‘역사적으로 인식하겠다’는 언명 자체가 자신이 이미-항상 상황 종속적 상태에 있다는 ‘각성’ 없이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없다면 남는 것은 구조주의적 결정론뿐이고 구조 자체를 벗어나려는 힘과 실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 박인식, 『건축 생산 역사 1: 고대의 단절과 고딕 전통의 형성』, 서울, 마티, 2022, 12-14쪽. 끝으로 공간이란 것이 사실은 단순히 건축과 도시에 국한해서 적용되는 개념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정치경제)·사회·문화의 측면에서도 충분히 논의되는 개념이라는 점은 꼭 언급해 둘 필요가 있다.

9) 서구에선 1990년대 전후, 국내에선 2010년대 전후부터 본격적으로 담론의 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경우, 마이크 크랭과 나이젤 스리프트(Mike Crang & Nigel Thrift)가 2000년에 편저한 *Thinking Space*(국내엔 2013년 『공간적 사유』로 번역)가 주목할 만하고, 후자의 경우엔 건축학이나 도시공학보다는 일찍이 사회·인문·문화지리학 및 비판문화지리연구(critical cultural geographies)의 학제적 연구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던 지리학, 또 그 지리학과 지역연구를 결합한 로컬리티(locality) 연구에서 적극 수용한 경향을 볼 수 있다. 더 구체적으로 공간적 전회와 르페브르의 관계에 집중해서 보자면 하비(David Harvey)의 *Social Justice and the City*(1988)와 *Spaces of Hope*(2000, 국내엔 그 이듬해인 2001년에 『희망의 공간』으로 번역), 소자(Edward Soja)의 *Postmodern Geographies: The Reassertion of Space in Critical Social Theory*(1989, 국내엔 1997년에 『공간과 비판사회이론』으로 번역)를 참고할 만하다.

10) Eagleton, Terry, *Materialism*, New Haven & London: Yale

상, 공간이 사회적이며 그것의 생산 또한 사회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심지어 공리(公理: axiom)로 보이기 까지 한다. 하지만 이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바로 구체성이 결여된 탓이다. 그렇기에 “순수한 추상 따윈 없다. 추상적인 것은 구체적이기도 하며,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인 것은 추상적이기도 하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구체적 추상이다.”는 주장은 타당하다.<sup>11)</sup>

‘공간의 사회적 생산’ 테제는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이다.<sup>12)</sup> 그것이 추상적인 까닭은, 한 번 더 말하지만, 어느 공간이라도 사회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공간이란 없으며, 그렇기에 그것은 언제나 사회적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테제가 진정한 추상성을 획득하려면 그것에 구체성 또한 부여돼야 하는데, 이는 사회의 역사사회적 조건이 다양하고 또 그에 따라 사회 발전이나 퇴행의 양상 역시 수많은 분기와 차이를 보인다는 사실로써, 그리고 그렇게 생성한 분기와 차이로 말미암아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란 것이 환원론이나 결정론으로 수렴된 채로 고착화할 일 따윈 결코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로써 이뤄진다. 기실 “각각의 사회(다시 말해서 다양함을 총괄하는 각각의 생산양식, 일반적인 개념을 인정하는 개별적인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sup>13)</sup>

## 2-2. 국가적 생산양식

사회적 역사사회적 조건은 기본적으로 언제, 어떤 사회냐에 따라 달라지며 그에 따라 공간의 생산 양상 및 관련 실천 또한 달라진다. 우선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특정 사회의 성격, 더 구체적으로는 그 사회의 생산수단을 누가 또는 무엇이 소유하고 있느냐 하는, 이른바 그 사회의 ‘생산양식’에 따라 달라지는데,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이 경우 사회는 크게 ‘자본주의 사회’와 ‘사회주의 사회’로 나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 한층 더 중요한 것은 둘 다 국가를 극복한 이후의 진정한 사회로 나아가기는커녕 ‘국가의 사멸(*absterben des Staats*; the withering away of the state)<sup>14)</sup>조차 경험하지 못한 채 정체해

University Press, p. 22; 이글턴, 테리, 『유물론: 니체,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의 신체적 유물론』, 서울, 갈마바람, 2018, 37쪽.

11) Lefebvre, Henri, *Dialectical Materialism*, John Sturrock (tr.),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p. 76; 엘튼, 앞의 책, 71쪽.

12) ‘구체적 추상’, 곧 추상성-구체성의 분리불가능성 및 변증법적 운동성은 더 크게 보면 보편성-특수성, 거시-미시, 연역-귀납, 심지어는 모던한 것-포스트모던한 것 같은 데도 적용할 수 있다.

13) 르페브르, 앞의 책, 77쪽.

14) 마르크스, K·엔겔스, F,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국가 자본주의’와 ‘국가 사회주의’의 단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각 사회 모두 여전히 국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별히 전자의 경우, 국가는 ‘위로는 사회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도 아래로는 이 사회의 토대까지 뺀어 내려온다. 국가는 결코 상부구조에 머무르는 법 없이 사회적 삶 전체를 망라하는 것이다. 국가는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면서도 그 관계와는 또 확연히 다른데, 이는 국가가 심지어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보장은 물론 중재까지 하기 때문이다.’<sup>15)</sup> 이 같은 역사사회적 국면을 르페브르는 ‘국가적 생산양식(*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the State Mode of Production)’으로 규정하는데, 그의 말을 빌리자면 그것은 “20세기를 통틀어 가장 의미심장한, 그러니까 “인간의 달 착륙보다 한층 더 중요한” 사건이었다.<sup>16)</sup>

## 2-3. 공간의 국가적 생산

근본적으로 국가적 생산양식이 ‘사회 전체에 대한 국가의 관리·통제·지배 양식’을 의미한다고 볼 때 1960-70년대 한국 사회에 국가적 생산양식이 강력하게 착근돼 있었음은 분명해 보인다.<sup>17)</sup> 가장 비근한 예로는 국가 주도적 계획경제를 지향한 키시 노부스케[岸部介, 1896-1987]의 이른바 ‘만주국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꼽을 수 있을 텐데,<sup>18)</sup> 그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 김계기 엮고 옮김, 서울, 거름, 1988, 241쪽. 간단히 말하면 ‘국가의 사멸’은 이렇게 도래한다. 첫째,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들 간의 모순, 곧 자본주의 사회의 자기모순이 건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짐에 따라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발발한다. 둘째, 혁명의 성공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이어지고 그 기간 동안 프롤레타리아는 기존의 강력한 국가가 지니고 있던 권력과 생산수단을 장악한다. 셋째, 프롤레타리아 독재라는 과도기 동안 권력과 생산수단은 점차 사회로 이양되고, 이에 따라 허울만 남게 된 명목상의 국가는 결국 사멸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프롤레타리아는 자신은 물론 자신과 적대적 관계에 있었던 부르주아지마저 해방시키게 되고, 계급투쟁엔 마침내 종지부가 찍힌다. 계급투쟁을 실질적으로 조장해 왔을 뿐 아니라 지배계급인 부르주아지의 ‘위원회’로서 그 계급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해 왔던 국가는 그렇게,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사멸’하게 된다. 참고로 국가의 ‘폐지(*abschaffung*)’와 ‘사멸(*absterben*)’의 명확한 차이는 같은 글, 286쪽, 역주 31을 볼 것.

15) Lefebvre, Henri, *The Explosion: Marxism and the French Revolution*, Alfred Ehrenfeld (tr.), New York &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69, pp. 44-45; 엘튼, 앞의 책, 366쪽. 여기서 르페브르가 분석하고 있는 것은 68혁명 당시의 프랑스라는 특수한 국가지만 그의 논의는 역사사회적 보편성을 띠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1960-70년대 한국 사회의 국가적 생산양식이라는 구체적 맥락에 적용해도 무방할 듯싶다. 따라서 지금부터 그렇게 논의를 펼쳐 간다.

16) Lefebvre, Henri, *De l'État III: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Pari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1977, p. 300; 엘튼, 앞의 책, 364쪽.

17) 엘튼, 앞의 책, 366쪽.

둘 모두의 원형(原型: prototype)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의 소련이 보여준 급성장파 그 기반이 된 국가 사회주의적 통제경제 및 계획경제일 것이다.

그것[국가적 생산양식]은 어쩌면 전체주의 국가의 사회적 생산과 그것이 생산력의 양적 성장을 열망하며 시행한 5개년 계획에서 가장 분명할 수도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거대한 선전 활동과 짝을 이뤘고, 그 목적은 위대한 과업·운하·댐·발전소·소비에트 농업의 기계화 같은 이미지를 세계에 보여 주려는 데 있었다.<sup>18)</sup>

사실 상기의 인용이 제시하는 것은 1960-70년대 한국 사회의 모습이 반세기쯤 전의 구소련에서 이미 선취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한국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를테면 경부고속도로(1968-1970)와 팔당댐 및 팔당수력발전소(1966-1973)의 준공은 당시 한국 사회의 국가적 생산양식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던 것이 바로 ‘공간의 국가적 생산’이란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 작업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파주의 화석정 또한 바로 그 같은 국가적 생산양식의 역사사회적 맥락에서 생산된다. 그것은 국가적으로 생산된 공간이자 건축·건축물인 것이다.

### 3. 화석정

#### 3-1. 개관



그림 1. 화석정

(촬영: 2022.08.30. '조선시대의 누정 및 그 편액에 대한 종합적 고찰' 연구진)

18) 이와 관련해서 오승훈, 「만주국, 박정희 독재의 기원」, 『한겨레21』 930호, <https://www.hani.co.kr/arti/PRINT/555111.html>(등록일: 2012.10.10. 접속일: 2023.04.19.); 강상중·현무암, 『기시 노부스케와 박정희 — 다카키 마사오, 박정희에게 만주국이란 무엇이었는데가』, 이목 옮김, 서울, 책과함께, 2012를 볼 것.

19) 엘든, 앞의 책, 366쪽 — [ ] 글쓴이.

우선 화석정의 건축적·역사적 특이사항을 비롯한 관련 기본 정보를 정리·소개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sup>20)</sup>

표 1. 화석정 개관

분류	특이사항
현황	•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61호(1974년 지정)
건축	• 정면 3칸, 측면 2칸 • 초익공 겹처마 팔작지붕 건물
역사	• 1443(세종 25년): 길재(吉再)의 유지(遺趾)에 이이의 5대 조부인 강평공 이명신(康平公 李明晨)이 정자를 건립 • 1478(성종 9년): 이이의 증조부 이의석(李宜碩)이 중수 • 1592: 임진왜란 때 전소, 80여 년 동안 터만 남은 상태로 방치 • 1673(현종 14년): 이이의 증손 이후지·이후방(李厚址·李厚坊)이 복원 • 1950: 한국전쟁 때 다시 전소 • 1966: 파주 유림이 성금을 모아 다시 복원 • 1973: 정부의 울곡 선생 및 신사업당 유적정화사업으로 단청 및 주변 정돈 완료
명명	• 몽암 이숙함(夢菴 李叔咸)의 정기(亭記)에 따르면, 당나라 때 재상 이덕유(李德裕)의 별서인 평천장(平泉莊)의 기문 중에 보이는 ‘화석(花石)’을 따서 정자 이름으로 삼았다고 함
편액	• 건물의 정면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쓴 “화석정” 현판이 걸려 있고 내부에는 이이가 8세 때 화석정에서 지었다는 『팔세부시(八歲賦詩)』가 걸려 있음

#### 3-2. 화석정과 전쟁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사이의 약 360년이란 역사적 간극을 두고 전소(全燒)와 복원(復元)을 두 번이나 되풀이한 화석정은, 그렇기에 전쟁의 참화에선 유달리 더 자유로울 수 없었던 듯 보인다. 이때 ‘전쟁의 참화’라 함은 물리적 표층에서 관념적·이데올로기적·담론적 심층에 이르는, 전쟁의 모든 층위를 함의한다. 이는 다음의 두 인용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하나는 일제강점기, 곧 화석정이 한국전쟁 때 소실되기 이전의 단신이고, 다른 하나는 1972년의 10월 유신 및 1973년의 재복원 이후에 게재된 연재 기사의 한 대목이다.

20) 참고한 자료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4667>;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ZyILPOGqX4OFMmeETM80swXZvNtHfEiGPsLZFXIsUPsiefpcxJTae4LoZDaSimev.cpawas\\_servlet\\_engine1?VdkVgwKey=21,00610000,31&pageNo=1\\_1\\_1\\_0](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jsessionId=ZyILPOGqX4OFMmeETM80swXZvNtHfEiGPsLZFXIsUPsiefpcxJTae4LoZDaSimev.cpawas_servlet_engine1?VdkVgwKey=21,00610000,31&pageNo=1_1_1_0);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화석정>(접속일: 2023.04.24.)이다. 곧 이어진 논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것은 진하게 처리했다.



그림 2. '栗谷의 화석정'(캡처: 2023.04.24. 『東亞日報』, 4면(사회면), 1929년 2월 17일자,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栗谷의 화석정

화석정은栗谷(李珥)先生이八歲時로壯年까지學業을修業하든곳으로壬辰年五月에三千里神域에때不意의亂으로宣祖大王께서西遷하실지음栗谷의遺言을遵守하야子孫들이이亭子에불을질러서마침夜間에渡江케된前路를받키게하얏음으로亂이鎮定된後에國費로重修한亭子이며坡州名勝으로屈指한다더라.<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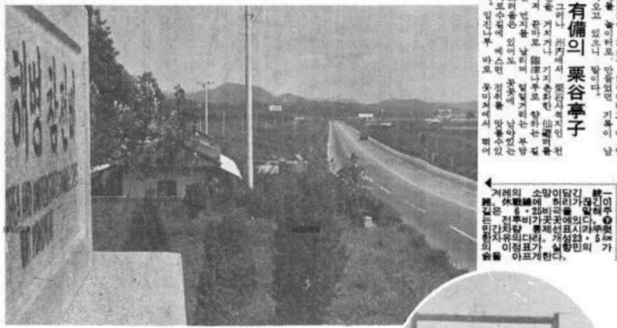


그림 3. '길 <6> 統一路 ②'(캡처: 2023.04.25. 『경향신문』, 6면(사회면), 1974년 9월 28일자,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有備의 栗谷亭子

... 임진나루 바로 못미처에서 꺾여 들어간 길을 따르며 강가에 새로 세워진 화석정이 우람한 느티나무 아래 강물을 굽어보며 서있다. 栗谷이 이곳에서 후학을 가르치며 여생을 보내던 곳이지만 그보다도 10만 양병론을 외치던 선견자 栗谷이 임란대 북으로 피난길에 나선 宣祖의 강건너는 길을 돕기위해 정자에 불을 질러 밤을 낮과 같이 밝혀줬다는 전설이 더욱 가슴 아프다. 비극

21) 현재의 말로 풀어쓰면, “화석정은 울곡 이이 선생이 여덟 살부터 장년까지 학업을 수행하던 곳으로 1592년 임진년 5월에 이 삼천리 성스러운 땅에 불의의 난이 일어나 선조가 평양으로 천도할 때 울곡의 유언을 준수한 자손들이 이 정자에 불을 질러 마침 야간에 강을 건너는 앞길을 밝히게 하였으므로 난이 평정된 뒤에 나랏돈으로 보수한 정자로서 파주의 명승으로 손꼽힌다더라.” 『栗谷의 화석정』, 『東亞日報』, 4면(사회면), 1929년 2월 17일자,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29021700209204005&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29-02-17&officeId=00020&pageNo=4&printNo=3050&publishType=00020> (접속 및 그림 캡처일: 2023.04.24.)

의 날을 점치며 儒生들을 시켜 매일같이 정자에 기름을 붓고 바르도록했다는 栗谷의 혜안이 亂世를 바로보지 못한 朝野에 막혀 은둔해야할때의 빠져린 근심과 아픔이 어땠을까?22)

상기의 두 인용에서 공통적으로 눈에 띄는 인물과 사건, 또 그 둘이 한데 엮여 전개되는 서사의 중심에는 이이와 선조, 임진왜란, 이이의 선견지명과 그것을 대표하는 십만양병설, 유비무환(有備無患), 선조의 몽진(蒙塵) 같은 것이 있다. 이로써 화석정의 역사가 의외로 정치적·군사적 담론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1970년대의 화석정은 그림 3과 그것에 이어지는 인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분단과 통일’의 맥락 속에 새롭게 자리 잡는 경향을 보인다.<sup>23)</sup> 하지만 정작 중요한 문제는 ‘분단과 통일’이라는 그 역사사회적 맥락이 생각만큼 매끄럽게 연결, 설명되지 않는다는 데서 발생한다.

3-3. 화석정의 국가적 생산 (1): 중층적 모순

1960-70년대 한국 사회 특유의 국가적 생산양식에 입각해 재복원된 누정 공간으로서<sup>24)</sup> 화석정에는 적어도 두 가지 모순이 중첩해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그 둘은 사실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연동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모순은 1970년대 초반의 ‘조국 근대화’ 과정에서 생산된 누정 공간과 그 공간을 채우는 건축물로서 화석정을 통해 정작 장려되고 있던 가치관이 전 근대적인 ‘충효사상(忠孝思想)’이었다는 데서, 두 번째

22) 李載人(글)·李鳳燮(사진), 『길 <6> 統一路 ②』, 『경향신문』, 6면(사회면, 기획 및 연재 기사), 『경향신문』, 1974년 9월 28일자, 출처: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1974092800329206001&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74-09-28&officeId=00032&pageNo=6&printNo=8926&publishType=00020> (접속 및 그림 캡처일: 2023.04.25.) 참고로 맞춤법과 띄어쓰기는 당시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23) 이는 그림 3 및 관련 인용을 발췌해 온 기사의 핵심인 ‘통일로’에서도 확연히 드러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과발동에서 경기도 파주시 문산의 임진각(臨津閣)에 이르는 전체 길이 49.2km의 통일로는 1971년 착공하여 1972년 완성한 것으로서, 그것의 명명엔 조국통일의 염원이 담겨 있다.’ ‘통일로(統一路)’,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59400> (접속일: 2023.04.25.) 이렇게 보면 ‘통일로’ 또한 앞서 살펴본 1970년대 한국의 국가적 생산양식에 입각해서 생산된 공간으로, 또 그렇기에 ‘표층에선 통일을 바라지만 그 심층에선 통일을 가로막는, 길 아닌 길’로도 파악해 볼 수 있다.

24) 르페브르가 펼치는 국가적 생산양식 관련 논의에서도 핵심을 이루는 것은 역시 공간의 국가적 생산이다. 사실 이는 국가가 대개의 경우 관념적인 차원에서 다뤄진다는 것에 대한 르페브르 자신의 문제 제기로 이뤄지는 것이며, 그 주장의 핵심엔 ‘공간에 대한 정치적 검토 또는 정치에 대한 공간적 검토’가 자리 잡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엘든, 앞의 책, 386쪽을 볼 것.

모순은 그 조국 근대화의 과정에서 도시성이란 것이 현대적 일상성(*quotidienneté moderne*)으로 점차 확장·심화되는 가운데서도 정작 화석정을 통해 강화되고 있던 사회성이란 것은 결국 농촌성에 입각한 ‘유교 기반의 사회적 위계질서’였다는 데서 발생한다.<sup>25)</sup> 결국 이 두 모순은 각각 전근대성과 근현대성 간의, 농촌성과 도시성 간(도농 간)의 모순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시의 화석정이 그 중층적 모순을 총효 사상과 유교 기반의 사회적 위계질서로써 ‘융합하고 있는 공간(the suturing space)’이란 점,<sup>26)</sup> 한발 더 나아가 한국전쟁이란 이데올로기 투쟁의 결과로 망실된 것을 그 투쟁의 존속은 물론 확대재생산까지 도모하기 위해 다시 건립한 모순마저 함께 내재하고 있는, 이른바 ‘국가적으로 생산된 공간’이란 점이다. 따라서 당시의 화석정 재복원은 1960-70년대의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던 여러 지배 이데올로기에 복무하도록 설계된 국가적 공간을 직접적으로 생산했던 ‘이데올로기적 실천으로서 건축 또는 이데올로기적 건축물’로 볼 수 있으며, 그 건축 또는 건축물을 통해 발휘된 문화정치적 효과로 가장 두드러진 것은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그림 3) 및 국민국가의 강화라고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국민국가’는 국가적 생산양식 또는 공간의 국가적 생산이 작동하게끔 하는 특정 맥락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한층 더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3-4. 화석정의 국가적 생산 (2): 국민국가와 전통 국가적 생산양식과 국민국가의 상관관계를 두고 르페브르는 이렇게 주장한다.

‘국민이 국가를 낳는다(La nation engendre l'État)’는 슬로건으로 요약된 유럽의 로고스와 일치하는 이 도식은 역사를 더 면밀히 검토할 때 역전된다. ... 돌이켜보면 우리는 영토를 지배하는 국가가 국민을 생산하는 것(la production de la nation par l'État)을 목격한다. 우리는 이데올로기로서 국민성을 **생산하는(prodiure)** 정치적 행동을 보며, 그 이데올로기는 민족적 요소, 신화와 전설의 요소, 종교와 도덕의 요소, 언어학과 의미론적 요

소를 지배하는 정치적 의지에 따라 해독되고 재기호화[再記號化]된(décodés et recodés) 이전의 요소에 기반을 둔다.<sup>27)</sup>

상기의 주장이 일종의 보편론이라면 1960-70년대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국가적 생산양식과 국민국가 구축의 상관관계에 내재하고 있던 특수성, 그러니까 당시 화석정이란 누정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국민국가 구축 또는 국민양성의 상관관계에 내포되어 있는 구체성은 한층 더 세밀한 작업을 거쳐야 비로소 논증 가능할 듯싶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는 이른바 경제 근대화를 따라잡거나 심지어는 그것을 앞서는 ‘정신 근대화’와 ‘국민정신의 개발’, ‘전통 복원을 통한 문예중흥’, 또 이 모든 것이 수렴하는 ‘주체화(subjectivation)’ 또는 그것의 기제로서 ‘유신체제에 순응하는 국민의 이데올로기적 양성’ 같은 것이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국민국가의 확고한 구축을 향해 매진하고 있던 10월 유신 이후 한국 사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하나로 꼽을 수 있는 것엔 이른바 민족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있었으며, 또 그것엔 으레 ‘전통’이란 것 또한 따라다니기 마련이었던 것이다.

... 1970년대 들어서 **민족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소리높이 강조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우리 문화생활의 어느 분야를 막론하고 ‘민족’, ‘전통’, ‘주체’라는 말이 일종의 유행어가 되어 갔다. 이에 박정희 정권은 물질과 정신면에 괴리되어 있는 차이를 하루속히 보충하는 **정신 근대화**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았으며, 단절된 전통문화를 전승시키면서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문예중흥**의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제기했다. 특히 박정희 정권은 국민의 정신근대화는 경제개발에 못지않게 중요하고 절실한 과제라고 보았으며, 이는 문예중흥을 성취하는 기초적이며 근본적인 선행조건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정신의 개발**은 경제개발에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이다. 그리하여 박정희 정권이 문예중흥을 부르짖었던 더욱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정신문화를 높여서 순화된 정신풍토를** 이룩하자는 데 있었다. 이러한 순화된 정신풍토란 **유신체제에 잘 순응할 수 있는 국민의 정신근대화 또는 정신개조를** 의미하기도 했다.<sup>28)</sup>

25) 이 중층적 모순이 추동하는 역사의 힘은 결국 ‘퇴행’이다.

26) 여기서 ‘융합’은 “**합의(consensus)**”를 상정하거나 실제로 그것을 도출하는 국가의 “**사회적 공간(espace social)**” 생산을 염두에 두고 쓴 것으로서, 이는 사실 국가의 “**정신적 공간(espace mental)**” 생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실 ‘융합’과 ‘합의’가 그람시(Antonio Gramsci)의 헤게모니론에서 핵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때 르페브르가 설파하는 ‘공간의 국가적 생산’은 ‘공간적 헤게모니론’ 또는 ‘헤게모니의 공간론’으로 봐도 무방할 듯싶다. 인용은 Lefebvre, Henri, *De l'État IV: Les contradictions de l'État moderne*, Pari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1978, pp. 260-261 — 강조 원저.

여기서 심각한 모순이 하나 더 생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10월 유신 이후의 정신 근대화가 바로 ‘황도유

27) *ibid.*, p. 202; 엘든 앞의 책, 367쪽 — 강조 원저, [ ] 글쓴이.

28) 김행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서울, 선인, 2012, 33-34쪽 — 강조 글쓴이. 원래 여러 단락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합치고 부분적으로는 수정했다. 참고로 인용에서 참고하고 있는 문헌은 그 수가 적지 않은 관계로 여기선 따로 밝히지 않는다.

학의 중흥 또는 재소환'을 통해 이뤄진다는 것인데, 이는 대표적인 황도유학자 안인식(1891-1969)이 충효사상에 대해 갖고 있던 인식과 박정희 정권 초창기에 대해 내린 평가를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난다. 우선 그는 일제가 1937년의 중일전쟁과 1941년의 태평양전쟁을 거치며 군국주의의 극단으로 치달고 있을 무렵엔 '일제를 도의(道義)의 제국으로 간주, 이 제국의 국민으로서 도의에 살고 도의에 죽는 충효도의를 강조'하는 입장을 견지한다.<sup>29)</sup> 그리고 '1965년 12월에 발표된 「충남유교」에선 박정희가 이끄는 혁명정부의 국민재건을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는 가운데 이른바 인도(人道)의大本(大本)이라 할 수 있는 유교정신이 국민정신의 함양 및 도의양양(道義昂揚) 운동을 통한 새로운 국민상(國民像) 확립에 기여하는 바를 역설'하고 있다.<sup>30)</sup> 하지만 엄밀히 따져 보면 당시의 새로운 국민상 확립이란 낡은 황도유교의 유물인 충효사상에 단지 새로워 보이는 말인 '국민'을 덧입힌 것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 때 그 국민은 일제의 황국신민을 부활시킨 것에, 또 그 국민이 꼭 갖춰야 할 덕목인 충효사상은 반공 이데올로기의 또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물질적으로 구현한 누정 공간이자 건축물이 바로 1973년, 그러니까 그 한 해 전 10월의 유신 이후에 재복원된 파주의 화석정인 것이다.

### 3-5. 반공 이데올로기: 외연과 내포

지금껏 해 온 논의를 화석정의 담론적 속성에 초점을 맞춰 간단히 한 번 더 되짚어보면, 우선 '전쟁'이 있고,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잘 치르기 위한 '유비무환'이 있다. 아울러 1973년의 재복원이란 맥락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면 '전근대적 충효사상과 농촌성에 입각한 유교 기반의 위계적 사회질서'가 있는데, 각각은 근대성 및 도시성과 함께 중층적 모순을 형성한다. 끝으로 그 모순은 '황도유학'의 부흥 및 재소환, 곧 충효사상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국민국가의 담론과도 깊은 관련을 맺으며 중층성을 더해 간다. 이를 염두에 두고 여기선 상기의 모든 논의를 가능케 하는 이론적 열개로서 바르트의 기호학 및 신화론을 간단히 설명토록 할 텐데, 필수 전제는 화석정을 모종의 '기호(signe)'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29) 강해수, 『“皇道에 醇化·融合된 유교”로서의 ‘황도유학(교)’ 담론: 다이토(大東)文化學院과 경학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2019, 445쪽.

30) 같은 글, 447쪽.

바르트의 기호학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줄곧 언어학의 차원에 머물러 있던 소쉬르(Ferdinand de Saussure)의 구조주의적 기호학을 변증법적으로 발전 시킴과 동시에 그 맥락 또한 역사사회적으로 확장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발전의 가장 중요한 추동력은 바로 이른바 '신화'라고 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서 '신화론'을 정초하는 데 있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바르트가 말하는 신화라는 것이 여느 신화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그림 4처럼 말이다.<sup>31)</sup>



그림 4. Paris Match 표지 사진

바르트가 이발소에서 보았다는 『파리 마치』 표지 사진 프랑스 군복을 입은 젊은 흑인이 삼색기에 경례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에서, 바르트는 '프랑스는 위대한 제국이며, 모든 프랑스의 자식들은 인종 차별 없이 그 깃발 아래서 충성스럽게 복무한다.'는 또 다른 의미 혹은 이데올로기를 읽는다.<sup>32)</sup>

이 같은 독해를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바르트 특유의 기호학적 모델이며, 그 도식은 그림 5와 같다.<sup>33)</sup>

31) 그림 4. 출처: 'Roland Barthes: Mythologies', <https://courses.nyu.edu.sg/course/elljwp/parismatch.htm> (접속일: 2023.05.01.)

32) 앨런, 그레이엄, 『문체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송은영 옮김, 서울, 엘피, 2006, 87쪽. 참고로 이 일화는 Barthes, Roland, *Mythologies*, Annette Laver (ed. & tr.),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72, p. 115에 실려 있다 — [ ] 글쓴이.





그림 5. 바르트의 기호학 도식

그림 5의 왼쪽 위부터 오른쪽, 또 그 아래로 보면 먼저 ‘언어, 1. 기표, 2. 기의, 3. 기호’의 묶음이 있고, 다시 왼쪽 아래부터 오른쪽, 또 그 아래로 보면 ‘신화, I. 기표, II. 기의, III. 기호’의 묶음이 있다. 전자가 소쉬르의 것, 후자가 전자의 변증법적 발전형이자 역사사회적 확장형이 되는 바르트 고유의 기호학적 모델이 된다. 그 둘의 연결 고리는 ‘3. 기호’와 ‘I. 기표’가 되는데, 이는 바르트가 소쉬르의 기호를 다시 신화 분석의 출발점이 되는 기표로 삼아 발전 및 확장을 꾀했다는 얘기가 된다.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바르트가 전자를 ‘외연적 의미’로, 후자를 ‘내포적 의미’로 한 차례 더 구분하여 그 내포적 의미의 형성 과정을 단순한 기호가 아닌 ‘의미작용(signification)’으로 지양하고 있던 점이다.<sup>34)</sup> 이렇게 보면 이제 네 가지 얘기가 가능하다. 첫째, 기호로서 화석정은 중층적이다. 외연적 의미로는 ‘3. 기호(signe)’에, 내포적 의미로는 ‘III. 기호(SIGNE)’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둘째, ‘표 1. 화석정 개관’에 열거·기술돼 있는 모든 정보는 화석정의 외연적 의미가 되고, 셋째, 그 뒤부터 죽 진행해 온 분석·설명은 화석정의 내포적 의미가 된다. 끝으로 넷째, 그 내포적 의미의 핵심에는 황도유학의 잔여물로 새롭게 빚어낸 ‘주체화된 신민으로서 국민과 그 국민에 대한 반공 이데올로기의 침투’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공간의 확립은 화석정이라는, 국가적으로 생산된 누정 공간의 일개 장식물에 지나지 않는 화석정의 편액 및 편액 쓰기의 실천으로 완성된다.

### 3-6. 편액과 제사: 이름 짓기 권력과 그것의 역설

다음의 그림 6은 박정희가 쓴 화석정의 편액이다.

“丙午 四月 朴正熙”이라고 돼 있다.<sup>35)</sup>



그림 6. 화석정 명호(名號) 편액

(촬영: 2022.08.30. ‘조선시대의 누정 및 그 편액에 대한 종합적 고찰’ 연구진)

앞서 3-4와 3-5에 걸쳐 ‘10월 유신 이후의 정신 근대화’가 바로 황도유학의 중흥 또는 재소환으로 이뤄진다는 얘기, 또 그것이 충효사상과 반공 이데올로기를 통한 국민국가의 담론과도 깊은 관련을 맺는다.’는 논의를 펼친 적이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그 재소환의 메커니즘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집중해 보고자 하는 것은 다름 아닌 ‘편액’, 또 ‘제사로서 편액을 적고 거는 실천’으로서 ‘이름 짓기 권력’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문화정치는 “이름 짓기’에 대한 투쟁과 자신을 재-서술하는 권력을 포함한다는 재-서술의 정치”와 밀접한 관련을 맺기 때문에 “이름 짓기의 권력(power to name)’과 특정한 권력의 서술은 문화정치의 한 형식”이 된다. 이로써 문화정치는 ‘이름을 짓고, 상식을 재현하고, 공식 설명(또는 공식판본, official version)을 만들어내고, 합법적 사회 세계(social world)를 재현하는 권력’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sup>36)</sup> 요컨대 박정희가 쓴 편액과 그것을 재명명하는 이름 짓기 권력, 곧 ‘재-서술의 정치’는 ‘화석정의 이름을 다시 적음’으로써 그것을 새롭게 규정하고, 그 규정에 따른 충효의 상식을 재현하고, 화석정 또는 그 편액의 공식판본을 확정하고, 그것이 구성하는, 당시 한국사회를 지배

33) 앨런, 앞의 책, 94쪽. 이미지 출처: 알퐁알롱, 『롤랑 바르트, 『문제적 텍스트』』, <https://top2solo.tistory.com/225>(게시일: 2012.05.05, 접속일: 2023.05.01.)

34) ‘외연적 의미’ 및 ‘내포적 의미’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앨런, 앞의 책, 106-107쪽을 볼 것.

35) “병오 사월 박정희”이며, 병오년 4월은 1966년 4월이 된다.

36) 바커, 크리스·갈라신스키, 다리우시,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백선기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88쪽. 이 문헌에선 방금 언급된 네 가지 권력을 Jordan, Glenn & Weedon, Chris, *Cultural Politics: Class, Gender, Race and the Postmodern World*, Oxford: Blackwell, 1995, p. 13의 내용을 수정해서 인용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참고로 중국에서 제사(題詞)는 상당히 중요한 문화정치적 실천이다. “개인, 더 구체적으로 사업가·상공업자·유력인사는 잠재적 상업가치나 그 밖의 개인적 목적을 위해 題詞를 얻을 기회를 소중히 여긴다.”는 말, 그리고 “2003년까지 Jiang Zemin은 33,800개, Mao Zedong은 22,800개, Deng Xiaoping은 19,400개, Li Peng은 11,800개의 작품을 썼다.”는 말은 題詞의 전통과 그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보여준다. 조수휘·발도프 주니어, 리처드 B, 『한자계획 — 반동인가, 진화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전국조 옮김, 역락, 서울, 2023, 430-432쪽(각주 16 포함).

하고 있던 국가적 생산양식의 합법적 사회 세계를 재현'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 4. 결 론: '공간의 사회적 생산'에 대한 재고

먼저 지금까지 이뤄진 논의를 간단히 요약해 보자. 첫 발은 건축과 역사의 복합적이면서도 다면적인 상관관계를 숙고해 보는 데서 났다. 다시 말해 건축과 역사는 물론, 건축의 역사, 또 역사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 및 건축물의 역사, 심지어는 역사의 건축까지도 아우르는 이 모두에 대한 시각·입장·관점의 문제, 이를테면 구조·주체 간 변증법적 관계 또는 그 관계 설정(dialecticization)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일로 시작했다. 그다음엔 이 작업의 이론적 열개로 도입한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국가적 생산양식'을 소개했다. 이로써 두 가지 주장을 펼치게 됐는데, 하나는 화석정이 1960-70년대 한국 사회의 국가적 생산양식에 따라 건축·조성된 공간이라는 점, 다른 하나는 그 누정 공간의 표층엔 '전통 복원의 사회적 공간'이라는 외연적 의미가, 그 심층엔 '반공 이데올로기의 침투'라는 내포적 의미가 연동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리고 이는 바르트의 기호학과 신화론을 검토함으로써, 또 화석정의 편액을 '제사(題詞)를 통한 이름 짓기 권력의 실천'으로 분석함으로써 재차 뒷받침하기에 이르렀으며, 이 모든 논의는 사실 1960-70년대에 걸쳐 이뤄진 누정 공간의 사회적 생산과 그것의 문화정치적 함의를 규명하려는 주목적을 달성하는 쪽으로 수렴했다.<sup>37)</sup>

지금부터 앞서 밝힌 것처럼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의 '가시성-가독성 간 관계'를 숙고하면서 공간의 사회적 생산이 건축 또는 관련 비평이라는 사회적 실천에 대해 함의하는 바를 검토해 보도록 할 텐데, 먼저 『공간의 생산』에서 한 대목을 인용하면서 시작해 볼까 한다.

... 가시성이 내재적인 사회적 관계의 **가독성**을 촉발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관계의 분석은 가시성과 반비례해

37) 이렇듯 요약을 마치고 보니 논지 전개에 문제점에 대한 지적 또한 적잖이 이뤄질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우선 1960-70년대의 화석정 복원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도 '당시 역사 현상의 배경', '집중적으로 조명을 한 역사 인물과 장소', '건축물'이라는, 이 세 가지 요소와 그것들의 상관관계에 대해 복합적 분석과 설명커녕 접근조차 하지 못했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역사적 인물로서 울국 이이는 어떤 연유로 선택됐는지, 이이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일련의 문화유산은 당시에 또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문제와 연동한다. 그리고 그 결과 상기의 맥락에서 화석정의 의미를 조명하는 일 또한 전혀 하지 못해 결국엔 이 작업에서 펼친 주장의 설득력과 전달력이 다소 약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이 문제는 향후 작업에서 적극 보완해 볼 생각이다.

서 어려워지므로, 하나의 역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sup>38)</sup>

여기서 중요해 보이는 것은 특정 사회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시성과 가독성 간 관계의 문제다.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보이는 것'과 '읽히는 것', 또는 가시성과 가독성의 사회적 매개체를 우선 상정해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작업의 전반적 맥락에서 보면 역시 크게는 공간, 작게는 건축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보이는 것과 읽히는 것 둘다 일차적으로는 '건축물을 포함하는 공간'이 될 것이다. 특정 사회에 내재해 있는 사회적 관계에 대한 가시성과 가독성, 아울러 이 둘 간의 관계를 파악하도록 해주는 사회적 매개체는 바로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이 되는 것이다. 이를 염두에 두고 앞서 제기한 문제로 되돌아가 보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은 가시적이다. 그것은 사실 가시적이기에 건축물이기도 하고 그것을 포함한 공간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의 자명한 가시성과 가시적 자명성이 가독성과 정비례의 관계를 형성하는 건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읽어 내야 할 것이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에 그치지 않고 특정 사회의 사회적 관계를 내재하고 있을뿐더러 그것에 토대를 두고 생산된, 이른바 사회적으로 생산된 공간이라면 그 공간 및 그것의 토대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관계의 분석에 필요한 가시성과 가독성은 오히려 반비례 관계를 형성한다. 가시성이 높을수록 가독성은 떨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반대, 그러니까 '가시성이 낮을수록 가독성은 올라가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왜냐하면 특정 사회의 내재적 사회관계에 대한 분석에서 일종의 '아포리아(aporia)'로 다가오는 이 반비례 관계는 그 사회의 공간을 바라보는 자의 영성한 태도, 이를테면 가시성과 그것의 기술(記述)에 지나치게 집착한 나머지 가독성과 그것에 기초한 분석·설명은 소홀히 하게 되는 태도를 함의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철저함과는 거리가 먼 태도는 '스펙타클(spectacle)'이 행사하는 '분리의 기술(technique of separation)'이자 그 기술이 불러일으키는 문화정치적 효과이기도 하다.<sup>39)</sup> 그 효과는 사실 점증한다. 극도의 가시성을 뿜내는 스펙타클-공간은 일차적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를 그 공

38) 르페브르, 앞의 책, 149쪽 — 강조 원저.

39) 이와 관련해서 드보르, 기, 『스펙타클의 사회』, 유재홍 옮김, 서울, 울력, 2014를 볼 것.

간에 대한 역사사회적 독해에서 떼어놓는다. 그리고 그 독해를 시작할 때 비로소 자각할 수 있는 자신의 현실에선 더 멀리 떼어놓고, 그 현실을 바꿀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실천에선 더욱더 멀리 떼어 놓는다. 이로써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을 바라보는 자, 이를테면 건축비평가 같은 사람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지가 조금은 더 분명해지는 듯하다.

우선 공간의 가시성에 현혹되지 않은 채 그것의 가독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 그리함으로써 그 스펙타클이 은폐는 물론 삭제까지 하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분석·설명하여 그것을 다시 씌고 동시에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공간의 역사사회적 이행을 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축물을 포함한 공간의 사회적 생산 테제가 건축 및 관련 비평이라는 사회적 실천을 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새롭게 던지는 질문이 아닐까?

#### 참고문헌

- 강해수, 「“皇道에 醇化·融合된 유교”로서의 ‘황도유학(교)’ 답론: 다이토(大東)文化學院과 경학원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2, 2019, 415-451쪽.
- 고진, 가라타니, 『은유로서의 건축』, 서울, 한나라, 1998.
- 김상환, 『니체, 프로이트, 맑스 이후: 현대 프랑츨철학의 쟁점』,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2, 389쪽.
- 김행선,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의 문화정책과 문화통제』, 서울, 선인, 2012.
- 르페브르, 앙리, 『공간의 생산』, 양영란 옮김, 서울, 예코리브르, 2011.
- 마르크스, K·엔겔스, F, 「공상에서 과학으로의 사회주의의 발전」, 『마르크스·엔겔스 저작선』, 김재기 엮고 옮김, 서울, 거름, 1988, 195-291쪽.
- 바커, 크리스·갈라신스키, 다리우시,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백선기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 박인석, 『건축 생산 역사 1: 고대의 단절과 고대 전통의 형성』, 서울, 마티, 2022.
- 엘런, 그레이엄, 『문제적 텍스트: 롤랑/바르트』, 송은영 옮김, 서울, 엘피, 2006.
- 엘든, 스텐트, 『앙리 르페브르 이해하기: 이론과 가능한 것』, 전국조 옮김, 부산, 경성대학교출판부, 2018.
- 알롱알롱, 「롤랑 바르트, 『문제적 텍스트』」, <https://top2solo.tistory.com/225>(게시일 2012.05.05, 접속일: 2023.05.01.)
- 오승훈, 「만주국, 박정희 독재의 기원」, 『한겨레21』 930호, <https://www.hani.co.kr/arti/PRINT/555111.html>(등록일: 2012.10.10. 접속일: 2023.04.19.)
- 조수휘·발도프 주니어, 리처드 B, 『한자계획 — 반동인가, 진화인가, 아니면 혁명인가?』, 전국조 옮김, 서울, 역락, 2023.
- 차문성, 「화석정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역사적 고증과 복원문제를 중심으로」, 『박물관학보』 35, 2018, 271-305쪽.
- Barthes, Roland, *Mythologies*, Annette Laver (ed. & tr.), New York: The Noonday Press, 1972.
- Eagleton, Terry, *Materialism*,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16; 이글턴, 테리, 『유물론: 니체, 마르크스, 비트겐슈타인, 프로이트의 신체적 유물론』, 서울, 갈마바람, 2018.
- Jordan, Glenn & Weedon, Chris, *Cultural Politics: Class, Gender, Race and the Postmodern World*, Oxford: Blackwell, 1995, p. 13 — 바커, 크리스·갈라신스키, 다리우시, 『문화연구와 담론분석: 언어와 정체성에 대한 담화』, 백선기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88쪽에서 재인용.
- Lefebvre, Henri, *The Explosion: Marxism and the French Revolution*, Alfred Ehrenfeld (tr.), New York & London: Monthly Review Press, 1969.
- Lefebvre, Henri, *De l'État III: Le mode de production étatique*, Pari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1977.
- Lefebvre, Henri, *De l'État IV: Les contradictions de l'État moderne*, Paris: Union Générale d'Éditions, 1978.
- Lefebvre, Henri, *Dialectical Materialism*, John Sturrock (tr.),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09.
- Lefebvre, Henri, *Toward an Architecture of Enjoyment*, Łukasz Stanek (ed.), Robert Bononno (tr.), Minneapolis & Londo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2014.
-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https://newslibrary.naver.com/>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https://www.heritage.go.kr/>
- 싱가포르국립대학교, <https://nus.edu.sg/>
-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
- 한겨레신문, <https://www.hani.co.kr/>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접수(2023.09.10.)

게재확정(2023.10.22.)